

보도자료

2010년 4월 26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주파수할당추진팀 정창림 팀장(☎750-2340)
주파수할당추진팀 송영식 사무관(☎750-2344) yssong@kcc.go.kr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 확정

- KT, LG텔레콤 및 SK텔레콤 선정 -

800/900MHz 주파수 대역은 KT와 LG텔레콤이, 2.1GHz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이 할당대상사업자로 각각 확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00/900MHz 대역을 할당신청한 KT, LG텔레콤과 2.1GHz 대역을 신청한 SK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개사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신청한 주파수대역의 할당대상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800/900MHz 대역은 주파수 할당 공고시 정한 바에 따라 심사결과 고득점을 획득한 KT가 우선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말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4월 중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주파수 할당심사를 마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30명의 전문가 중 추천기관별 안배, 허가심사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 및 기술부문 각 7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1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할당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토대로 3개 심사사항(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기간 중에 할당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주 중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할당 대상 사업자 선정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2.1GHz 대역은 통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즉시 주파수를 할당하고, 800/900MHz 대역은 통보 직후 KT로부터 선호대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4월말까지 사업자별 대역을 결정한 후, 2011년 6월까지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2011.7.1일자로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다.

이번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 선정으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수 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됨은 물론, 스마트폰 보급 확산,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